

새싹작은도서관 2019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

회의개요

회의명	새싹작은도서관 2019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
일시	2019. 10. 31.(목) 14:00
장소	복지관 프로그램실1
참석인원	○ 운영위원: 9명 중 8명 참석 구혜경, 김선진, 김재란, 김지영, 김춘년, 정진화, 정창수 현충열 ○ 배석(직원): 4명 김재란, 홍대원, 정겨운, 최현아
안건	○ 보고안건 - 사업소개 및 현황 보고 - 주요사업 성과 ○ 심의안건 -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- 다양한 세대의 이용자 유입 방안 - 융합형 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

회의내용

☐ 개회

-홍대원 부장, 9명의 위원회원 중 8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알리다.

☐ 신규위원 위촉

-구혜경, 김선진, 김지영, 김춘년, 현충열 총 5명 위원을 신규 위촉하다.

☐ 보고사항

○ 사업소개 및 현황 보고

-홍대원 부장, 회의자료의 도서관 주요 사업과 이용 현황에 대해 보고하다.

○ 주요사업 성과

- 홍대원 부장, 회의자료의 주요사업 성과인 새싹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사업에 대해 보고하다.

□ 논의사항

○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

- 홍대원 부장, 위원장 선출 조례 및 현 운영위원을 안내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을 설명하다.
-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며 가까운 위치에 거주하는 이용자 대표 정진화 위원이 위원장으로, 아이를 가르치는 김선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후보에 오르다.
- 만장일치를 통해 정진화 위원장, 김선진 부위원장을 선출하다.

○ 다양한 세대의 이용자 유입 방안

- 홍대원 부장, 새싹작은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고하다.
- 정창수 위원, 아동을 위해 지어진 새싹작은도서관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새싹작은도서관만의 특화 사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성인 이용자를 유입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을 제시하다.
- 김재란 위원, 독거노인·장애인·조손가정·북이탈주민 등이 대다수인 13단지의 현황에 비해 1층 어린이집, 2층 새싹도서관·장난감도서관, 3층 드림스타트 등 어린이 공간의 비율이 높은 복지관의 현황을 보고하다.
- 김춘년 위원, 주민이 찾아와 활용하는 도서관을 위해서는 세대를 나누기보다는 공간을 활용하여 여러 세대가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며, 장기를 두는 공간을 활용하는 등 책만 읽기보다는 다양한 세대를 수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다.
- 김지영 위원, 아이들이 많은 12단지·8단지 주민들은 거리상 하안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, 새싹작은도서관은 타 도서관에 비해 책 종류가 적으므로 전집류의 도서를 많이 비치할 것을 제안하다.

○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

- 김춘년 의원, 아이를 위한 특화 사업으로 부모와 같이 하는 활동을 추천하다.
- 정창수 위원, 엄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의 주 목적이 방해받는 일은 없어야 함을 강조하다.
- 정진화 의원, 학부모의 프로그램 참여도는 강사의 유명도에 따라 좌우됨을 강조하며 강사비 등의 비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자 김지영 위원, 이에 동의하며 강사의 질을 중요시할 것을 당부하다.
- 정창수 위원, 관 내 44개의 작은도서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이 골고루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다.

○ 융합형 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

- 현충열 위원, 작은도서관의 취지를 잊지 말고 주민 자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며, 현재 진행중인 '책읽는 엄마 모임', '책 읽어주는 할머니' 프로그램을 언급하다.
- 정진화 위원,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적은 것을 언급하자 현충열 위원, 단순 이용보다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지역 내 일반 이용자와 같은 친근한 사람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다.
- 구혜경 위원, 외부 강사를 초청하기 보다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, 지역 어르신이 장기·바둑을 두거나 뜨개질을 할 때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과 같은 융합형 프로그램을 제안하다.
- 정진화 의원, 기존 활동 중인 동아리에게 도서관 공간을 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다.
- 김춘년 의원, 강제성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역주민을 끌어들이야 함을 강조하며 장기 동아리실에 장기 관련 도서를 배치하는 등의 예시를 들며 책에 대한 접근성과 친근함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다.
- 현충열 위원,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외부 도서관 사업을 소개하며 자율참여 동아리 형식 프로그램의 첫 시도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다.

□ 폐회

- 김재란 위원, 이상 언급된 안건을 두 가지로 정리하다. 첫째, 새싹도서관이 광명시의 특화도서관으로써 존재하므로 유아·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개발해야 하며, 둘째, 융합형 프로그램을 위해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도서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하다.
- 홍대원 부장, 위원들에게 기타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 후 폐회를 안내하다.

2019. 10. 31.

위원장	정진화 (인)
-----	---------